

경관해설 시나리오 (마당바위)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에 근무하는 ○○○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산행에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등산하고 계시는 이 곳 도봉산에 대해 간략히 아시는 것도 의미 있는 산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이 곳은 마당바위라는 곳으로 도봉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평한 지형이라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봉산은 북한산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멋진 경관과 맑은 공기를 맛볼 수 있는 곳도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의 자연공원이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5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 ‘도봉’ 이름 유래

첫 번째는 조선 왕조 제건 시기 뜻있는 지사들이 이곳에서 큰 뜻을 키우고자 학문을 연마하고,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도를 닦았다 하여 도봉산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암벽으로 된 하얀 봉우리가 길처럼 이어졌다고 해서 도봉산입니다.

*‘봉’과 ‘대’의 차이

臺(돈대 대) : 평지보다 높고 평평한 곳.

峯(봉우리 봉) : 받들 봉(奉)위에 산을 올려놓아 보기에도 뾰족하고 높다는 것을 나타냄

• 북한산의 역사

삼국시대: 한산(한강 이북의 크고 넓은 산), 부아악(북한산의 인수봉의 형상을 빗대어서)

고려시대: 삼각산(북한산의 인수봉, 만경대, 백운대 이 3개의 봉우리가 뿔처럼 장엄하게 서 있다고 해서 삼각산이라고 칭함)

조선시대: 북한산성 축조 이후 북한산

(option) 우리나라 5대 명산 :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 북한산

한북정맥: 한반도 13정맥의 하나

백두대간의 추가령에서 서남쪽으로 뻗음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하구에 이르는 산줄기

북한산 국립공원 내 한북정맥 구간 : 사패사 -> 도봉산, 우이령, 상장봉 경유-> 솔고개

• 형성과정

그렇다면 이런 봉우리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북한산은 지금으로부터 1억 5천 만년 전, 공룡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인 중생대 쥐라기 시대에 만들어진 화강암 바위들이 오랜 동안 풍화와 침식 작용을 통해 깎여나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 경관

이렇게 해서 형성된 도봉산의 대표 봉우리들은 대자연의 걸작품입니다.

그럼 각각의 봉오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 우이암: 앞쪽으로 보이는 봉우리는 우이암입니다. 소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소의 귀처럼 보이시나요? 우이암은 우이동 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소의 귀 모양이고, 마당바위에서 바라보면 성모마리아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 위치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올라오시면서 한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3개의 봉우리를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도봉산을 대표하고 있는 선인봉, 만장봉, 자운봉입니다.

2. 선인봉(708m, 약 710m)

- 지금이야 암벽등반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오를 수 있는 곳이지만, 그 옛날에는 선인봉을 함부로 오르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닦는 선인들이나 올랐으리라 생각해서 봉우리 이름이 '선인봉'이라고 합니다.

3. 만장봉(718m, 약 720m)

- 이름: 매끈한 봉우리가 대략 만장이나 되어 보인다. 실제 아파트 건물 40층 정도의 높이를 가짐.

- 야설: 태조 이성계가 만장봉 꼭대기에 로프도 없이 올랐다.

4. 자운봉(739m, 약 740m)

- 3개 봉우리를 멀리서 바라볼 때는 만장봉이 가장 높아 보임, 하지만 실제로는 자운봉이 도봉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전면에서 보게 되면 만장봉 뒤에 있는 자운봉을 가리게 되어서 자운봉이 만장봉보다 낮아 보이지만, 산 정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높이가 확연히 차이남.

- 불교에서 의미하는 상서로운 자줏빛 구름이 봉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줏빛 자에 구름 운자를 써서 자운봉이라고 합니다.

만장봉과 자운봉은 암벽장비 소유에 관계없이 등반하실 수 없는 곳입니다. 선인봉 역시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일반 등산객에게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 자운봉 옆 고지730m 신선대라는 곳에 오르셔서 세 봉우리를 포함한 드넓은 지역을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세 봉우리에 오르지 못한다고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신선대 정상에서 겨울산의 정취를 한껏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또 다른 주요 봉우리인 오봉과 여성봉, 사패산이 있습니다. 선인봉의 남성적인 느낌이라면 사패산과 오봉, 여성봉의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5. 오봉(660m)

- 이름: 다섯 개의 봉우리

- 특징: 도봉능선의 마지막 봉우리로 솟아올랐다가 우이령을 건너뛰어 북한산 백운대와 인수봉으로 이어짐.

- 전설: 오봉은 각 봉우리마다 암석이 올려져 있는데, 한 마을의 다섯 총각이 원님의 어여

뿐 외동딸에게 장가를 가기 위해 바위를 던져 올리기 시험을 하여 지금의 봉우리가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6 사패산(552m, 약 550m)

- 이름: 조선선조의 6번째 딸 정휘옹주가 '유정량'에 시집갈 때, 임금이 하사한 산 아래 마패를 제작하는 곳

7. 여성봉(504m, 약 500m)

- 이름: 여성의 생식기와 유사
- 특징: 화강암 바위의 자연적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암봉.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는데 그러한 신기한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이 놀랍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형상을 떠올린다는 것이 더 놀랍다.

6. 수락산

- 수락산은 원래 도봉산과 하나의 산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심 개발로 인해 지금은 두 개의 산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 새(option)

마당바위 주변에 조그만한 새들이 참 많이 보이죠?

(대표적인 새 소개)

1. 박새: 우리나라의 대표 텃새. 북한산에서 그 수가 가장 많음, 번식도 많이 함, 한 번에 10개 이상의 알을 나무 구멍 속 동지에 낳음.
 - 박새: 목이 검고 가슴과 배 중앙을 가로지르는 굵은 검은 선, 벅타이처럼
 - 진박새: 턱밑과 뒷목이 검은색, 머리 위 깃털이 솟음
 - 쇠박새: 작은 박새, 턱밑만 검은색.
2. 곤줄박이: 등과 배가 적갈색, 배의 가운데, 이마와 얼굴은 흰 크림색.
3. 동고비: 곤줄박이와 비슷, 검은 굵은 선의 눈선, 가느다란 흰색의 눈썹선. 나무줄기의 어느 방향으로든지 기어 다닐 수 있음. 금속성 울음소리를 냄. 딱따구리의 빈 동지나 나무구멍을 진흙으로 입구를 좁혀사용, 약 7개의 알을 낳음.
4. 까치 : 우리나라의 국조, 하지만 무법자!! 매우 공격적, 곡식, 나무열매, 작은 설치류, 작은 새들의 새끼 및 알 등을 무자비하게 먹어치우는 왕성한 식욕. 따라서 국조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유해조수'로 인식.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 이들은 북한산을 대표하는 조류이면서, 북한산의 먹이 생태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

따라서 야생에 서식하는 새한테 먹이를 주는 것을 삼가 달라.

폭설 및 재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가 아닌 양호한 생태계에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야생동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야생성을 오히려 잃게 하고 생태 습성을 바꾸어 놓음.

예) 지리산 반달가슴곰 - 탐방객이 먹이를 주는 습성 때문에 탐방객을 따라다니며 구걸을 함.

인간이 주는 먹이에는 특정한 종에게 맞지 않는 성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예) 사람이 주는 과자 등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빨이 썩음. 고기를 먹는 육식인 곰이 이빨이 상하면 어떡하겠나?

그리고 지금 여기 서식하는 새의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끼들도 그러한 습성을 학습하게 됨. 이것은 즉, 그 종의 생존능력을 저하, 종의 멸종 위기까지 초래.

비록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신 행동이라 할지라도 장/단기적으로 야생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임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스

지금부터 산행코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당바위에서 하산하는 코스는 크게 천축사를 거쳐 도봉대피소로 내려가는 방법과 성도원과 금강암을 지나 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축사 코스가 돌계단이 계속 이어지는 가파른 코스이고, 성도원 코스는 그보다 완만한 편입니다. 마당바위를 지나 쪽 올라가면 도봉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인 신선대를 오르게 됩니다. 마당바위부터 신선대는 가파른 코스로, 호흡을 잘 가다듬고 차근차근 오르셔야 하겠습니다. 시간은 여유있게 40~50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봉산 정상인 자운봉을 기점으로 서울방면인 도봉주능선으로 오르면, 송추 오봉산과 여성봉으로 향하실 수 있고, 우이암을 거쳐 하산하시면 도봉역과 우이동쪽으로 향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방향 의정부 방면 포대능선으로 가시게 되면 송추의 사패산에 다다르실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하산하시면 1호선 망월사역과 회룡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 안전산행

산에 오르시기 전에 간단히 스트레칭이라도 하셨나요?

갑자기 무리한 산행을 하게 되면, 허벅지, 종아리, 허리 등에 근육통이 생기게 되고, 무리하게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 발목 관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르막길에서 안정감 있게 발 전체를 지면에 밀착시키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내리막길에서는 뒤통치부터 딛고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어 무릎을 살짝 굽혀 가볍게 텅기듯 걸어서 체중의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여름철 산행) 그리고 혈압이 높고 순환기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갑작스러운 산행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땀으로 몸 안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과 뇌 속의 혈관을 막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행 시 답답하거나 두통, 구역질이 동반되면 그 자리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산행)

특히, 설연이 휘날리는 겨울산은 모든 산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위험요소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 일조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후 3시면 하산 결정을 해야함.

겨울산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체온유지’. 저체온증은 특히 몸이 젖었을 때 나타나기 쉽다. 땀을 흘리고 능선에 오른 후 잠시 쉴 때는 지체없이 우모복 등 보온 의류를 꺼내 입어야 함.

산행에 나서기 전 기상청이나 인터넷 일기예보 등을 통해 오르고자 하는 산의 기상상태와 적설량, 온도변화 등을 체크.

산행 중 예기치 못한 폭설을 만나 고립되었다면 눈이 그친 후 반나절 이상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것이 안전. 눈이 쌓인 직후에는 바람이나 햇볕 등에 의한 눈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산행예절

도봉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매년 탐방객이 가장 많은 곳, 심지어 단위면적당 탐방객수로 세계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함. 그래서 되도록 많은 탐방객들이 기분 좋은 산행을 할 수 있는 tip을 드리겠습니다.

1. 앞서가는 사람을 추월할 때는 양해구하자

좁은 산길에서 예고 없이 추월할 경우, 신체나 배낭 등의 접촉으로 중심이 흐트러져 사고를 당할 수 있다.

2. 올라오는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자.

내리막을 걷는 사람보다 오르막을 걷는 사람이 페이스조절이 힘들고 시간이 촉박,

3. 휴대전화, 라디오, 야호소리 등 소음 금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 더욱이 야생동물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게 됨.

* ‘야호’라는 소리는 조난당했을 때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로 사용됨.

4.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 인사하기

산에 오실 때는 일상의 뻑뻑한 마음을 내려놓으시려고 오시죠? 기분을 좋게 하는 아름다운 자연에 더해서 서로 간의 가벼운 인사를 통해 즐거움을 배가 시킬 수 있다. 대신 너무 큰소리보다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사. 깜짝 놀람.

5. 지정된 탐방로로 다니기.

남들이 밟지 않은 태곳적 느낌을 즐기시는 분들, 특히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 중 많다. 하지만 이 산의 주인은 사실 인간이 아니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자리를 지키는 나무, 바위, 야생화들이다. 잠깐 손님으로 온 우리들이 샛길로 다님으로써 그들의 보금자리는 마무 훼손된다. 손님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자.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에 근무하는 ○○○이었습니다.